

지역 소식통

영농폐기물 집중 수거

고창군이 농촌환경 개선과 재활용 촉진을 위해 폐비닐 등 영농폐기물의 종류별 수거 강화에 나섰다.

22일 고창군에 따르면 올해 농촌폐기물 수거 보상금으로 모두 5억5300만원(영농폐비닐 5억1500만원, 농약빈병 3800만원)의 예산을 확보했다.

이에 더해 올해부터 농약 빈병 보상비(국비)가 조기 소진되면 하반기부터 고창군 자체 예산으로 보상금을 지급할 예정이다. 농촌폐기물은 영농 후 발생되는 농업용폐비닐, 농약빈병, 쓰다남은 폐농약, 재활용할 수 없는 영농폐기물이 해당한다. /고창=김영식 기자

부안군의회, 임시회 개최

부안군의회(의장 이한수)가 지난 21일부터 29일까지 9일간의 일정으로 제309회 임시회를 개최했다.

이번 임시회에서는 11건의 안건을 심의·의결하고 2020년도 상반기 주요사업 현황 청취 및 방문을 실시할 계획이다.

다만, 코로나 19로 인한 사회적 거리두기가 아직 필요로 만큼 사업장 방문을 최소화하여 추진할 예정이다.

한편, 장은아 의원은 5분 자유 발언을 통해 코로나 정국 이후 부안군이 청정 이미지를 제고하고 환경 친화적인 도시로 도약하기 위하여 주요 관광지인 도시 가로수 및 공원에 대해 농약이 아닌 친환경 약제를 이용한 방제가 선제적으로 필요하다는 점을 강하게 주장하였다. /부안=김석진 기자

조사료 가공시설 신축

고창군이 조사료 가공시설 신축을 통해 최고급 한우 생산지의 명성을 이어간다. 22일 고창군에 따르면 흥덕면 고창부안축협경제사업장에 30억원(국비 9억원, 지방비 9억원, 자부담 12억원)을 들여 '조사료 가공시설'을 신축하고 있다. 조사료 가공시설은 소가 필요로 하는 영양요구량을 충족하도록 조사료와 농후사료 등 여러 종류의 사료를 혼합 제조·생산하는 시설이다. /고창=김영식 기자

VR·AR기반 관광 활성화

정읍시, 내장산 일원 체험장·복합 스포츠 시설 조성 중 4차 산업혁명·5G 시대부합 스마트 관광명소 도약 기대

4차 산업혁명과 5G 시대에 맞춰 VR(가상현실)과 AR(증강현실)이 저변 확대의 급물살을 타며 이에 대한 관심 또한 세계적으로 높아지고 있다.

VR은 컴퓨터가 만든 가상환경 내에서 사람이 실제와 같은 체험을 할 수 있도록 하는 최첨단 기술이다.

또, AR은 현실의 이미지나 배경에 3차원 가상 이미지를 겹쳐서 하나의 영상으로 보여주는 기술을 말한다.

VR과 AR은 게임과 영상 등 엔터테인먼트 산업 중심이었으나 최근에는 관련 기술의 성장 및 각종 산업 간의 융합으로 의료, 교육, 제조업 등 다양한 분야에서 적용되고 있다.

정읍시는 이러한 추세에 발맞춰 VR·AR을 기반으로 한 지역관광과 지역경제에 활력을 불어넣기 위해 총력을 다하고 있다.

관련해 시는 내장산 문화광장 일원에 총 40억 원을 투입해 VR·AR 체험

장을 비롯한 15종 28개 높이 시설과 복합 스포츠 시설을 조성 중이다.

또한, 지난해 '정읍 대한민국 VR·AR 체험박람회'를 개최한 데 이어 22일 (재)전라북도문화콘텐츠산업진흥원과 '2020 정읍 대한민국 VR·AR 체험박람회' 및 '전북 게임문화 콘텐츠 페스티벌' 행사 공동개최를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이를 통해 시는 4차 산업혁명 시대와 5G 시대에 부합하는 스마트 관광 명소로 떠오르게 될 전망이다. 이날 협약식에는 유진섭 시장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과 최용석 원장 등 진흥원 관계자들이 참석했다. 협약은 진흥원의 지역 기반 게임산업 육성사업 운영으로 전북 지역의 게임·문화·축제공합시장 개척을 위한 사업 수요조사를 통해 진행하게 됐다.

협약 이후 양 기관은 대행사 선정과 사업 구체화를 위한 긴밀한 협의를 거

쳐 10월 중 행사를 개최할 예정이다.

시와 진흥원은 4차 산업혁명 시대 VR·AR 콘텐츠 전시와 함께 미래산업을 이끌어갈 미래산업 콘텐츠 체험, 5G 실감 콘텐츠 체험 등의 프로그램을 구성할 계획이다. 이를 통해 환경 변화에 선제 대응하고 젊은 층의 관심을 높여 정읍으로 유입함으로써 지역 관광과 경제 활성화라는 두 마리 토끼를 잡는다는 방침이다. 특히, 공동 운영에 따른 시너지 효과를 극대화해 전북도민과 정읍시민의 삶의 질 향상은 물론 지역 발전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유진섭 시장은 "이번 협약을 통해 정읍뿐만 아니라 전북의 관광 활성화 및 지역경제에 활력을 불어넣는 기회가 되길 바란다"며 "정읍시가 4차 산업혁명 시대를 선도하는 도시로 자리매김 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시는 지난해 2019 정읍 대한민국 VR·AR 체험박람회 개최를 통해 VR, AR, MR 등 17개의 첨단 콘텐츠를 경험할 수 있는 체험의 장을 마련했다. /정읍=김대환 기자



부안을 명당마을에 거주하는 김수일·김순조 부부가 지난 22일 부안군 근농인재육성 재단을 방문하여 지역인재 육성을 위해 장학금으로 300만원을 기탁했다.

부안읍 명당마을 김수일·김순조 부부 장학금 쾌척

부안읍 명당마을에 거주하는 김수일·김순조 부부가 지난 22일 부안군 근농인재육성 재단을 방문하여 지역인재 육성을 위해 장학금으로 300만원을 기탁했다.

김수일·김순조 부부는 "훌륭한 지역의 인재를 만들어 내기 위해서는 교육환경의 혁신적이고 지속적인 개선을 해 나가야 한다는 마음에서 지금까지 장학사업에 동참하고 있다"며 "우리 지역 학생들이 꿈과 이상을 위해 나아가도록 도움을 주고자 이번에도 장학금을 기탁하게 되었다"며 장학금 후원에 대한 배경을 전했다. /부안=김석진 기자

이들 부부는 지난 2015년부터 부안군 장학사업에 동참하여 올해까지 5차례의 걸쳐 1300만원을 기탁해 지역인재 육성에 기여하고 있다. /부안=김석진 기자

고창무장봉기, 126년만에 교과서 실린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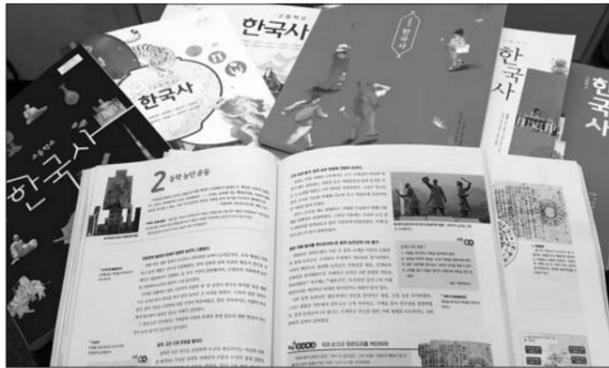
올 개정 고교 역사교과서 8종 동학 자긍심 찾기 노력 결실

동학농민혁명의 시작이 무장(전북고창)봉기라는 사실이 역사학계에선 이미 정설이 되었음에도 교과서에 실리지 못했는데, 올해 개정된 고등학교 한국사 교과서에 역사적 사실로 수록되면서 126년 만에 동학농민혁명의 발상지 고창이 국민들에게 각인될 수 있게 됐다.

특히 '국가기념일 무장포고문 낭독', '성지와 사업 국가예산 확보'에 이은 '역사교과서 수록'으로 고창군의 동학농민혁명 자긍심 찾기 노력이 빛나고 있다.

22일 고창군에 따르면 2020년 새학기부터 사용되는 고등학교 8종의 한국사 교과서(2019년11월27일 검정) 전체에서 고창 무장봉기(무장기포)를 기술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이는 동학전문연구자들과 고창군민 등 소수만 알던 역사적 사실이 국민적 공감대를 얻는 획기적인 계기가 될 전망이다.

각 교과서는 무장봉기(무장기포)에 대해 "1894년 음력 3월20일(양력 4월 25일) 고부 봉기에 실패한 전봉준이 순화증과 힘을 합쳐 고창 무장에서 일



동학농민혁명의 시작이 무장(전북고창)봉기라는 사실이 올해 개정된 고등학교 한국사 교과서에 수록되면서 126년 만에 고창이 국민들에게 각인될 수 있게 됐다.

킨 대규모의 농민 봉기"로 기술했다. 또 1954년 국내 최초로 교과서를 만들기 시작한 미래엔 등 일부 교과서는 '무장포고문'과 '4대 강령' 등을 수록하기도 했다.

'고창 무장기포'는 전라도에서 가장 큰 동학세력을 구축한 무장지역의 점주 순화증과 합류한 고창출신 전봉준 등이 동학농민혁명의 대의명분을 함축해 전라도 지역뿐만 아니라 전국에 격문을 보내 농민군들의 합류를 촉발

했다.

특히 무장기포는 혁명의 이념과 지표인 '무장포고문'과 농민군 행동강령인 '4대 강령'을 정립 발표함으로써, 소규모 농민 소요가 농민 혁명의 틀을 갖춘 것으로 평가된다.

여기에 동학농민혁명이 지역적 한계를 벗어나 전국적인 대규모 항쟁으로 커지고, 우리나라 역사 민족·민중항쟁의 근간으로 평가받고 있었다.

/고창=김영식 기자

정읍시, 맥류 병해충 조기 방제 당부

이상고온·잦은 강우 탓

정읍시농업기술센터는 겨울철 이상고온과 최근 잦은 강우로 보리·밀·귀리 등 맥류에서 발생하는 붉은곰팡이병과 잎집눈무늬병 등 병해충이 발생할 것으로 보고 빠른 시일 내에 병해충 방제를 당부하고 나섰다.

최근 정읍지역 맥류 생육 조사 결과 출수기가 전년보다 7일 이상 빨라지고 3월 중순 이후부터는 평균기온 7℃ 이상이 연속되어 조기 병해충 발생이 염려되고 있다.

특히, 인근 시군에서는 보리에서 황화현상이 발생하고 토양 전염성 곰팡이병인 밀 잎집눈무늬병이 발생되고 있어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 보리의 황화현상은 월동 후 부화한 진딧물이 보리황화회화병 병원체를 전파시키며 활동하고 심한 포장은 포장 내 20~30% 개체가 누렇게 변한다.

밀에서 주의 되는 병해는 잎집눈무늬병으로 줄기 아래쪽에 갈색의 둥근 무늬가 병 징후로 나타나고 심한 경우 고사한다.

방제 방법으로는 보리 황화현상의 경우 그 원인인 진딧물류 살충제 피페트로진 수화제를 살포하고 생육 회복을 위해 요소 2%(물20L 요소400g)을 10a당 100L씩 살포해야 한다.

밀에서 발생하는 잎집눈무늬병의 경우 붉은곰팡이병 방제약인 메트코나졸(살린군, 울샷 등)수화제, 디페노코나졸(플레이)을 농약 안전사용기준에 맞춰 방제해야 한다. 또한, 병해충 다발생 지역은 수확 후에도 식물 잔재물을 제거하고 병원균이 토양에 남아 있지 않도록 토양개량이 필요하다.

기술센터 관계자는 "올해 월동 후 봄철 평균기온이 높아 진딧물 등 병해충 조기 방제가 우려된다"며 "최근 강우로 맥류에 붉은곰팡이병 발생피해가 예상되므로 빠른 시일 내에 살균제, 살충제를 살포해 병해충을 방제하길 바란다"고 말했다.

/정읍=김대환 기자

구독·광고문의
063-288-9700

본인이 똥똥 하다고 생각하시면 몇 kg 정도 를 빼고 싶으세요?

뱃살, 내장지방, 체지방을 요요현상 없이
귀하가 원하는 만큼 쏙 빼수 있습니다

상담전화: 010-3655-9009
블로그: <http://kangsb1959.blog.me>
메일: ndtherapy119@gmail.com

효소다이어트, 해독 프로그램 전문